

다산포럼

노년의 처연함, 노년의 경이(驚異)



고 세 훈
고려대 명예교수

유대의 고대 문헌들은 인간의 생애를 ‘짧고 악하다’(few and evil)고 요약한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춘추가 얼마시냐?’는 파라오의 물음에 했던 답 또한 “내 나그네 인생이 걸어 온 ‘짧고 악한’ 70년...”이었다. 비극적 정서는 노년의 감회에도 서려 있어서, 솔로몬이 말년에 쓴 구약 최고의 지혜서 전도서 마지막 장은 이렇게 기록한다. “백발이 찾아와 모든 욕망이 끊기면 육체 위의 때투기 한 마리로 집이 되고... ‘내 죽음을 슬퍼할’ 애곡자들은 거리로 흩어지리라.” 그러나 그 속절없는 무상함 속에서도 영원을 꿈꾸는 인간은, 오늘날 ‘죽어 고쳐 번지 않을 사랑’을 되뇌며 ‘저 하늘, 저 바다 끝까지 단둘이 살자’며 서로를 위로하는 존재다.

C.S. 루이스는, 물고기가 물을 찾듯, 무엇 모든 갈망이란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라 말한다. 가령 인간이 영원을 꿈꾼다면 그것은 영원한 세상이 어딘가 실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죽음에 관한 모든 사유가 반증(反證)

나이 들어 견뎌야 하는 것들

지난 5월 타계한 미국 작가 필립 로스의 소설 ‘에브리맨’에는, 분방하고 원기왕성한 날을 보내던 주인공이 느닷없는 질병으로 20여 년을 고통 속에 보내다 죽음을 맞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입원과 수술이 거듭되고, 친지도 취미도 젊은 여자에게도 흥미를 잃어가던 주인공이 마침내 맞닥뜨린 것은 관계의 절멸이다. 자신의 우상이던 형의 성공과 건강마저 점차 잡을 수 없는 질투의 대상이 되면서는 그 다감하던 형과의 관계도 단절된다. 존재의 이유와 보람이 온통 손주 얘기뿐인 실버타운의 노인들 틈에서 그의 고독은 더 절망적으로 깊어진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주는 최악은 그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동안 노년은 ‘이것 아니면 저것과의 전쟁, 무자비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친숙했던 이들이 하나둘 소멸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노년을 ‘전쟁 아닌 대학살’이라고 느낀다. 주인공은 “살점이 썩어 가고 뼈는 남으니, 신은 허구이고 내세는 없다고 믿는 내게, 뼈만이 유일한

위안”이라며 자학하기에 이른다. 로스 못지않게 우리에게 친숙한 폴 오스터가 ‘브루클린 연가’(The Brooklyn Follies)에서 그린 노년은 사뭇 다르다. 주인공은 폐암을 통보받자 ‘조용히 죽기 위해’ 어릴 때 떠났던 브루클린을 다시 찾는다. 그리고 죽음의 예감에 몸서리치는 노년은 아니라, 저마다의 상처로 허물어져 가는 가까운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느라 분주한 일상을 보낸다. 그 와중에 새로운 사랑을 찾고 또 만나기도 하며, 틈틈이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잡다한 기억들을 기록하는 일도 멈추지 않는다. 구태여 쾌락을 탐하지도, 인정받고자 노심초사하지도 않으며, 각별한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니 조바심 내며 안달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불의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 아니며, 일이 틀어졌다고 원망과 자책에 빠지지도 않는... 그저 긍정하며 사는 무난한 세월이었다.

물질과 정신이 고갈되고 나면

그러나 밀려드는 노년의 체념과 상실감만은 어쩔 수 없다. 유망한 영문학도였던 조카가 뒤늦게 발견한 그의 작가적 재능을 경족하며 “글쓰기는 영혼의 독감 같아서 언제 누구를 강타할지 모른다”고 거인들의 예를 동원하여 장광설을 늘어놓지만, “60세에 작가가 되는 일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는 완강한 노년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여진

히 그 자신은 ‘글쓰기가 단지 소일거리인, 다는 아무 할 일이 없는 은퇴한 보훈 외판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인생의 남은 날들을 세며 지혜를 배우는 일은 노년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잡언을 잠시 떠올리다가, 오래 전 한 대학신문에서 보았던 글 하나가 생각났다. “한스-게오르그가다머를 세계적 철학자로 알린 ‘진리와 방법’은 그가 60세 되던 해에 출판한 첫 저서였다. 그가 20세기 지적 사건이라 할 여러 논쟁에 참여한 것도 모두 그의 나이 60을 넘어서였다... 칸트가 ‘인간학’을 썼을 때 나이가 74세였고, 미켈란젤로가 성 베드로 성당 등 근 천정의 구상에 몰두한 것은 팔순을 넘기고였다. 독일 안과 의사 히르슈베르크는 75세에 현역을 은퇴한 뒤 아랍어 공부 시작했다.”

신화처럼 들리는 이들의 노년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희망을 준다. 그러나 젊음 하나에 가능성을 걸었던 청춘마저 가고, 병고와 외로움에다 OECD 최고의 빈곤율을 매일 몸으로 살아 내는 이 땅의 노인들에게 노년의 경이란, 그저 터무니없는 한담에 불과하리라. 가난은 먼 저 상상의 잠재력을 질식시키고, 물질과 정신이 고갈된 곳에 남는 것은 권태(ennui) 뿐이니.

社說

보육 시설 아동 학대 감시·처벌 강화해야

광주·전남 지역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부모나 보호자가 없어 학대 행위를 당하더라도 호소할 곳조차 없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에는 현재 아동 양육 시설 13곳에 529명, 7인 이하 공동생활 가정인 ‘그들홈’ 27곳에 157명 등 모두 40곳의 아동 복지 시설에서 606명의 보호 대상 아동인 고아들이 생활하고 있다. 전남은 54곳의 아동 양육 시설에 1058명, 31곳의 그룹홈에 492명 등 85곳에 1550명이 머물고 있다.

지난해 이들 시설에서는 광주 18건, 전남 16건 등 모두 34건의 아동 학대가 있었다. 최근 광주일보가 집중 보도한 광주 YWCA 산하 S보육시설의 학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 생활한 고 모(20) 양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용돈을 모아 쌍꺼풀 수술을 한 뒤 정신병원에 강

제로 입원당할 뻔했다가 의사의 거부로 돌아오는 등 갖은 학대를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통해 해당 원장의 해임을 권고했지만 복지법인 이사회는 한 달간의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시설 내 아동 학대 사건이 공식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외출 금지나 휴대 전화 사용 제약 등을 빌미로 폭언을 일삼고 가혹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게 아동들의 주장이다.

보육 시설의 학대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감시 체계가 허술한 데다 처벌 또한 미약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연간 수억 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시설 내 아동 학대와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인 내 개방형 이사회 등을 도입해 투명한 운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전남도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마련한 ‘전남 지역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가 최근 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을 돌며 드론을 띄워야 하는데 비행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국인이 제감하는 규제 혁신이 이뤄지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정책과 현장을 균형 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흔히 우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 탁상에만 앉아 있어서는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짐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이나 어업인의 애로 사항뿐만 아니라 급격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면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소형 이륜차 분류 기준에 준해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전남도는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예를 들면 적조 예찰이나 양식장 모니터링을 위해 드론을 띄워야 하는데 비행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국인이 제감하는 규제 혁신이 이뤄지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정책과 현장을 균형 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흔히 우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 탁상에만 앉아 있어서는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짐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이나 어업인의 애로 사항뿐만 아니라 급격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춘 특·특



심 효 은
동강대 임상병리과 1년

최근 학교에 가거나 휴일 외출할 일이 생기면 헝기는 물건이 있다. 바로 텀블러다. 우리 주위를 조금만 살펴보면 쓰레기통이나 길거리에 쌓여 있는 일회용 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진다.

근래 우리 일상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점점 늘어나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를 둘러싼 수 많은 논란이 있었다.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가 되지 않고, 사라지려면 400년 이상이 걸린다. 매년 800만 톤에 이르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 보호, 실천이 중요하다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고 분해된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만약 물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일회용품 사용의 심각성을 느끼길 바란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8월 1일부터 커피 전문점을 포함한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요즘 커피 전문점을 가보면 두 달여 만에 많이 달라진 모습을 느낀다.

우선 매장 직원들의 멘트다. 고객이 음료를 주문하면 매장에서 마시는지, 테이크아웃을 하는지 꼭 확인한다. ‘마시고 간다’고 하면 머그컵에 음료 서비스를 하겠다고 덧붙인다. 고객들도 주문하기 전 텀블러를 건네는가 하면 직원이 물어보

기전 자신이 먼저 ‘마시고 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 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적발 시 과태료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을 부과 할 수 있다. 모든 매장이 100% 과태료 때문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식음료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마트나 빵집 등에서도 비닐 봉투 대신 종이 봉투를 사용하면 환경 사랑에 동참하고 있다.

일회용 컵 사용은 줄었지만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빨대의 위해성에 대한 지적이 일자 이를 보완할 종이 빨대 제품이 출시됐다. 하지만 음료를 마실 때 녹록해지는 특성 때문에 불편하다는 여론이 대다수다. 여기에 매장 내 머그컵의 수량 부족, 인력 부족의 문제도

좀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 일회용품 규제로 사용량이 줄고 있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테이크아웃이라고 말한 후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며 매장에 앉아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 무조건 일회용 컵에 달라 역자를 부리는 사람까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다.

일회용품은 많은 부분에서 편의성을 주지만 과도한 사용은 숲 파괴 등 심각한 환경 오염 뿐 아니라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한다.

일회용품 사용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가 숨쉬는 지구의 환경을 위해 다회용 컵을 쓰고 비닐 봉투 대신 에코백을 매보자. 나의 작은 노력 이 모여도 행복과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실천 하자.

기 고

소태 위생매립장을 다시 주민의 품으로

정원한 건이 53건이나 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각종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무분별한 의견 표출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 그러나 고인이 되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라 정의한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참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 동구도 민선 7기를 맞아 ‘마을 단위 풀뿌리 민주주의 행정을 위한 주민 정책 제안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9월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등 3개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주민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한 달 동안 ‘동구 소태동 위생매립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소태동 위생매립장은 광주·화순 간 국도 22호선 근처 남문로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11만 8632㎡(약 3만 5000여 평). 이곳이 조성된 배경은 1995년 민

선 1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주시 전 지역은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치였고 있었다. 북구 운정동 광역 위생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대체 매립장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시가 자치구별로 매립장을 마련토록 방침을 세우자 우리 동구는 서둘러 매립장 마련에 나섰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집단 농성이 수십 차례나 있었고 이런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일 년이 넘게 걸렸다. 여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1998년에 매립장 조성 공사 첫 삽을 떴다. 총 사업비 135억 7000만 원을 들여 2000년에 공사를 마무리해 그해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조성된 동구 위생매립장은 자치구 단위 매립장으로는 전국 최초라는 뜻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2011년 9월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하루 기준 약 100여 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동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그 역할을 다해준 소중한 존재였다.

서울·인천·대구 등 대도시에서 운영됐던 매립장이 사용이 종료된 후 친환경 생

태 공원으로 복원된 사례가 많다. 우리 동구는 10여 년 동안 동구의 환경을 지키 위생매립장을 다시 주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사례인 생태 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 중이다. 공모전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 단위로 규모가 큰 총 1000만 원의 시상금을 걸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 복지 시설, 문화·관광 시설 및 수익 사업 등 모든 분야의 제안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을 시작한 후 필자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린다. 제갈량이 정책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며 한 말인데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동구의 소중한 자산인 위생매립장 부지 활용 방안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주민들께서 소중한 의견 내주시기를, 그래서 주민들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가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최 봉 현
광주시 동구 도시관리국장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당선 즉시 취임하면서 정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인수인계를 국민들에게 받기로 결정하고 ‘광화문 1번가’라는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두 달이 채 못된 기간 동안 접수된 제안만 약 15만 건, 하루 평균 3000여 건에 이르렀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현상이라 하더라도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라 할 만 했다.

또한 청와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국민 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현재 20만 명 이상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016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영화 524편. 지난 4일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신성일(본명 강신영)이 평생 출연한 작품 수다. 그는 23세(1960년)에 영화 ‘로맨스 페퍼’(감독 신상욱)로 데뷔해 76살(2013년) ‘아관문:육양의 꽃’에 이르기까지 50년간 스크린을 빛낸 영화인이었다.

그를 기억하는 영화는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맨발의 청춘’(1964년)의 반항적인 폭력배를, 또 누군가는 ‘별들의 고향’(1974년)의 경아를 사랑하는 화가를 떠올릴지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그의 히트작인 ‘별들의 고향’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의 출연작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부산영화제 회고전에서 술한 자신의 출연작중 가장 아끼는 작품으로 ‘만추’(1966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래서 따뜻한 영화를 이후 세 차례나 리메이크했다. 그럼에도

정작 원조 ‘만추’는 생소하다. 조선최 전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이 지난 2009년 펴낸 ‘클래식 중독’을 펼쳐보면 왜 원조 ‘만추’가 사람들의 기억에 별로 남아 있지 않은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 영화사에서 멜로 드라마의 걸작으로 기록돼 있지만 불행히도 필름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영화광이었던 북한의 김정일이 ‘만추’ 필름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고인이 한때 북한을 방문해 ‘만추’를 복사해 올 생각을 품었던 것도 그 때문

이다.

지난 1월, 화순에서 투병 중이던 그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영화 제작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요즘 한국 영화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고, 분노하고, 사회 비판하면서 복수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산하가 온통 붉게 물드는 ‘만추’의 계절에 은막의 ‘별’ 하나가 스러졌다. 그러나 청춘의 아이러니였던 이 별들의 ‘스타’는 영원히 대중들의 가슴속에 살아 있을 것이다.

/송기동 편집국장 부국장·예향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광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문 화 부 220-0661	경영지 원 국 (FAX 222-8005)	문화사 업 국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여 론 매 체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FAX 222-0195)	업 무 국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디 자 인 실 (FAX 02-773-9331)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전 남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